

기도

빌립보서 4:6-7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저는 할 말도 별로 없어서...기도시간이 힘이 든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배의 순서에 보면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제목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어떤 기도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 봤는데요, 답을 하지 못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 기도는 “대화” 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과의 우정” 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는 것,

이 바로 “기도” 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 하는 것,
내 모든 상황을 말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6-7절,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7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분이 염려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어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어떤 품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안겨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그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시편 18: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5: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간구하며,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어떤 기도가 축복을 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그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장인어른께서 담도암 수술 후에 간암으로 전이가 되어서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아버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제목을 올렸고 동기 전도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시길,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기에 아버지께서 투병 중에 늘 읊조리셨던 시편 23편의 나의 목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원에 함께 간 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 내는, “끌어낸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응답을 기어이 받아 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나의 정성을 보여주면, 신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 준다는, 이루어 준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크도다 아데미여” 라고 외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아와 대적한 이방 선지자들은 심지어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들이 선지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이제 들어줄게” 라고 여기게 만들려고 이러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날 저 역시 제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식 농성을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정도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이정도까지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때 저는 제가 “악하구나 악해...”라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 시켜서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받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드리면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안기고, 아빠 같이 놀아 주세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 자전거 타고 싶어요...라고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다같이 먹을 때도, 아이들이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나와 모든 것을 다 이야기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리미리 기도제목을 기록해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경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우리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중에 정말 심각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관계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방적인 경우입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붓물 터지듯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야...하고 쏟아낼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더 그렇겠지만,

그렇게 쏟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으로 끝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그래 이제 나도 한마디 해줘야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 버리면, 이런 모습은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고 가버리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말하기에 바빠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얼굴에 표시가 다 나죠,

제가 심방을 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실컷 쏟아 붓고,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가 버렸다면

그것보다 예의가 없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말하는 시간도 있지만,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마음을 쏟아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기도

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즐겁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말로 해야 합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청산유수 같이 하지 않아도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리다보면 기도의 내용이 깊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면요,

말씀기도
나눔기도

말씀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마태복음 6: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눔기도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듣고, 그 삶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형제, 자매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둡니다.

느헤미야를 읽었으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사랑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제 삶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전 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을 부르며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공활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수록 우리는 욕심을 따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보다 성숙한 기도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7절, “너희가 내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 정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매말라가고, 곧이어 닥쳐오는 인생의 위기의 상황을 버텨낼 힘이 없어 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